

JESUS' SERVANT LEADERSHIP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

마가복음 10:32-52

요절: 10:45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Good morning! It is a great blessing to be here this morning to worship our Lord Jesus Christ together.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During the last year I have visited India, Hong Kong and Heidelberg, Germany-places where you have sent missionaries.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을 파송한 인도 홍콩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역들을 방문했습니다.

The work of God in each place is remarkable.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웠습니다.

I have come to appreciate and respect Yonhee UBF very much, and it is a real honor to share a message with you today.

저는 연희UBF에 대해 큰 감사와 존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메시지를 나누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My message title is: Jesus' Servant Leadership. Let's pray.

제 메시지의 제목은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As we begin this message, I want to ask you a question: “What kind of leader are you?”

메시지를 시작하는 지금 제가 여러 분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입니까?”

It is a question all of us should consider, whether we are leaders in ministry, in our homes, on our campuses or in our workplaces.

이 질문은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캠퍼스나 직장을 막론하고 리더인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질문입니다.

It is said that an ordinary person influences at least 10,000 others in their lifetime.

평범한 사람도 일생동안 약 일만 명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We will be held accountable by the Lord Jesus for the kind of influence we give and leadership we practice.

주 예수님은 우리가 끼치는 영향력과 우리가 행하는 지도력이 어떠한가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So again I ask, "What kind of leader are you?"

그래서 저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입니까?"

At the center of this passage is a contrast of two mindsets in regard to leadership.

오늘 본문 중에는 리더십에 관하여 대조를 이루는 두 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One is the mindset of fallen human beings.

하나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It is to rule over others by force, compelling submission, and exploiting them.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다스리고, 복종을 강요하며, 그들을 착취합니다.

The other is the mindset of Christ.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It is characterized by humble, willing service of Christ and others.

그것은 겸손함이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섬기는 마음입니다.

May we learn the mindset of Christ.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We can divide this passage into three parts: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the Son of Man must suffer, die and rise again (32-34),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32-34),

Jesus teaches servant leadership (35-45),
섬기는 리더십을 가르치시는 예수님(35-45),

and Jesus' blesses the faith of a blind beggar (46-52).
맹인 거지의 믿음을 축복하신 예수님(46-52).

The thread that ties them all together is Jesus' life-giving spirit and servant leadership.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스피릿과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First, the Son of Man must suffer, die and rise again (32-34).
첫째,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32-34절).

Jesus and his disciples were on their way up to Jerusalem.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Yet there was tension in the air.
하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Jesus had twice foretold his suffering, death and resurrection.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 죽음, 부활을 두 번이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And the disciples had rejected Jesus' teachings.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Unresolved disagreement hung in the air.
해결되지 않은 의견 차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The disciples' reluctance must have weighed heavily on Jesus.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How lonely he might have felt.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His disciple training work seemed to be failing.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But there was no hesitation or delay in Jesus.
하지만 예수님은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He pressed on, leading the way.
예수님은 그 길을 앞장서서 나아가셨습니다.

When the disciples saw his raw courage and determination, they were astonished, while those who followed were afraid (32a).
제자들은 그의 담대함과 결연함에 놀라고, 뒤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32a).

With resolution, Jesus took his disciples aside and told them again what was going to happen to him (32b).
굳은 결심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다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Look at verses 33-34.
33-34절을 보십시오.

“We are going up to Jerusalem,” he said, “and the Son of Man will be delivered over to the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They will condemn him to death and will hand him over to the Gentiles, who will mock him and spit on him, flog him and kill him. Three days later he will rise.”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일 만에 살아나리라”

Here Jesus refers to himself as “the Son of Man.”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This is a Messianic title found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인자란 구약성경 전체에서 자주 사용한 표현으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It refers to the one whom God would send to destroy evil and unrighteousness and to establish his kingdom with love and truth, justice and peace.

악과 불의를 파하고 사랑과 진리, 정의와 평화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실 바로 그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Among many aspects of meaning, “the Son of Man” emphasizes his humanity and his divinity (e.g. Ezek 2:1; Da 7:13-14).

많은 의미 가운데, "인자"는 메시아의 인성과 신성을 강조합니다 (예: 에스겔 2:1; 다니엘 7:13-14).

Being fully human and fully divine, the Son of Man would carry out God’s will to redeem the fallen world and bring people back to God.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신성을 가진 인자는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Just as the Son of Man’s coming was foretold, so also was the way he would accomplish God’s will.

인자의 오심이 예언된 것처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지도 예언되었습니다.

He would be betrayed by a beloved disciple and handed over to enemies who hated him.

그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를 미워하는 원수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They would put him on trial with many false charges and accuse him in every way possible to humiliate him.

그들은 그를 많은 거짓 혐의로 재판에 세우고 온갖 방법으로 그를 고소할 것입니다.

Then they would condemn him to death—a horrible death at the hands of Roman soldiers.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로마 군인들의 손에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사형을 선고할 것입니다.

He would be mocked and spit on, flogged and killed.

그는 조롱당하고 침 뱉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The flogging would be so severe that it would leave his skin in shreds and blood would flow profusely.

끔찍한 채찍질로 그 살갓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엄청난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Then he would be nailed to a cross, left to hang, naked and bleeding—shamed to the utmost—until he

died.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벌거벗은 채로 피를 흘리며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Three days later, he would rise again.

그러나 사흘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Why was this necessary?

왜 이렇게 되셔야만 했을까요?

Wasn't there another way?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The Bible tells us that this was God's will for the Son of Man (Isa 53:10).

성경은 이것이 인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사 53:10).

Isaiah explains,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up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Isa 53:5).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 53:5).

Jesus suffered so much and died for our sins.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많은 고통을 겪으셨고 죽으셨습니다.

Sin is not a light matter.

죄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It is far more serious than we may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The Bible says, "The wages of sin is death" (Ro 6:23).

성경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로마서 6:23).

And after death comes eternal condemnation in the fiery lake of burning sulfur (Rev 21:8).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불타는 유황 불못에서 영원한 정죄를 받습니다(계시록 21:8).

We cannot escape from this terrible destiny by our own effort.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We cannot not buy salvation with money, earn it with good works, or attain it with higher education.

우리는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고, 선행이나 더 좋은 교육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But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6).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God provided a way of salvation through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Here we learn of God's love and Jesus' saving grace.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배웁니다.

God loves us.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We should believe this.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Then we can live meaningful and dynamic lives with inner confidence that comes from faith.

그 때 우리는 믿음이 주는 내적 확신 속에 의미 있고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But sometimes, we can doubt God's love, thinking, "How can God love me with all my faults and sins?" How can God love the world when so many evil things happen?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토록 죄와 허물이 많은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We need to look at Jesus on the cross.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Apostle Paul says in Romans 5:8,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사도 바울은 로마서 5:8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God’s love is not like our love.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릅니다.

God’s love is unconditional, absolute, overwhelming and eternal.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이고 놀랍고 영원합니다.

He loved us even while we were at our worst, and offered Christ for us.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최악의 상황일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The vivid portrayal of Jesus’ crucifixion is an irrefutable demonstration of God’s love.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생생한 묘사는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Let’s accept God’s love.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Jesus’ saving grace gives us victory over sin and death.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죄와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줍니다.

We should believe this.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Yet, we may doubt, especially when we struggle with chronic sins or character flaws or wounds.

그러나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되고 뿌리 깊은 죄나 성격상의 허물 또는 상처로 어려움을 겪을 때 더욱 의심하기 쉽습니다.

Then the gospel may seem to us to be ineffective like just an old, old story.

그러면 복음은 그저 오래된 옛이야기처럼 힘이 없어 보입니다.

Look at Jesus on the cross!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He cried out, "It is finished" (Jn 19:30).

그는 "다 이루었다!" 외치셨습니다.

It means the price has been paid once and for all.

이는 단번에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As the perfect man and perfect God-sinless and holy-his one sacrifice paid it all.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십니다. 그의 단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Hebrews 10:14 says, "For by one sacrifice he has made perfect forever those who are being made holy." Let's accept Jesus' saving grace and victory over sin. Amen.

히브리서 10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Let's accept Jesus' saving grace that gives us victory over sin. Amen.

우리 모두가 죄를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영접합시다. 아멘.

Second, Jesus teaches servant leadership (35-45).

둘째, 섬기는 리더십을 가르치신 예수님(35-45).

As Jesus foretold his work as the Son of Man, what were the disciples thinking?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하실 일을 예언하셨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Were they concerned about Jesus?

그들이 예수님을 걱정했습니까?

Did they try to understand his teaching?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 했을까요?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came to Jesus and said, "Teacher, we want you to do for us whatever we ask" (35).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5)

They wanted to make a brazen request. But they hesitated to say it boldly.
그들은 당당한 요청을 하고 싶었지만 ,담대하게 말하기가 주저되었습니다.

They tried to cajole Jesus into promising what they asked before he knew what it was.
그들은 예수님께 청탁을 잘 해서, 주님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일단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How did Jesus respond?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Despite his own dire situation, he had room in his heart for them.
예수님 자신이 절박한 상황 속에 있으셨지만, 그 마음속에 그들을 품고 계셨습니다.

He was ready to listen to them and help them.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귀기울이며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He asked,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36)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36)

They felt free to share their hearts with Jesus.
그들은 거리낌없이 자유롭게 예수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They quickly replied, "Let one of us sit at your right and the other at your left in your glory" (37).
그들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7)

Wow! What a request!
와! 이 얼마나 엄청난 요청입니까!

They were trying to obtain from Jesus the top two positions in his kingdom government.
그들은 예수에게 주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두 자리를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Their request was urgent because transition was coming soon.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은 시급했습니다.

In the pressure of the moment, their selfish ambition was exposed on the surface.
시시각각 다가오는 압박 속에 그들의 이기적인 야심이 드러났습니다.

God made man to be great. God made man to be a ruler.
하나님은 인간을 위대한 존재로,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But selfish ambition distorts these godly desires.
하지만 이기적인 야심은 이 같은 경건한 소원을 왜곡시킵니다.

Sometimes, selfish ambition arises suddenly, from the least likely people.
때때로 가장 야심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서도 이기적인 야심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So President Abraham Lincoln said, "Nearly all men can stand adversity, but if you want to test a man's character, give him power."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시련과 역경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견디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내면을 테스트 해 보고 싶으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보세요"

How might one respond to a request like James and John made?
누군가가 나에게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요청을 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When King Solomon was on the throne of Israel, his political rival Adonijah made a sneaky request through Solomon's mother (1Ki 2:19ff.).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있었을 때, 그의 정치적 라이벌인 아도니야는 솔로몬의 어머니를 통해 몰래 간교한 요청을 했습니다(왕상 2:19b).

Solomon discerned that behind the request was Adonijah's ambition to take the throne.
솔로몬은 그 요청의 이면에 아도니야가 왕위를 차지하려는 야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He had Adonijah put to death.
그는 아도니야를 죽게 했습니다.

Of course, Jesus would not punish his beloved disciples like that.

물론, 예수님께서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렇게 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But we might expect that at least he would be angry with them.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가 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However, Jesus was very understanding and patient. He pointed out their ignorance, and helped them to make a better request.

하지만 예수님은 깊은 이해심과 인내심으로 제자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이 더 나은 것을 구하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Jesus asked them, "Can you drink the cup I drink?"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Jesus implies that drinking his cup is prerequisite to sharing his glory.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잔을 먼저 마셔야 함을 의미하셨습니다.

Jesus' cup was to suffer and die for the sins of the world.

예수님의 잔은 세상 죄를 위해 받는 고난과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Then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and exalted him to his right hand as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Php 2:6-11).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그를 오른편으로 높이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빌 2:6-11).

If the disciples wanted to share his glory, they must share his suffering.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받고 싶다면, 주님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They said, "We can."

그들은 말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Most likely, they thought they were signing up for a resistance movement.

아마도 그들은 로마압제에 대항하는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싸인을 하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Nevertheless, Jesus accepted their answer.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받아 주셨습니다.

They would participate in his sufferings to carry out his great world mission task.

그들은 주님의 위대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Indeed, James became the first martyr among the Twelve (Ac 12:2).

실제로 야고보는 열두 사도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행 12:2).

John suffered much and was exiled on the island of Patmos for Christ (Rev 1:9).

요한은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밧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계 1:9).

They suffered with Jesus; and they would share everlasting glory with Jesus.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However, Jesus could not promise them seats at his right and left.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좌우편 자리를 약속해 주실 수 없었습니다.

Those places would be given to those whom God had chosen (40).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40).

Jesus helped his disciples wisely—to participate in his sufferings without any condition, trusting God’s sovereign grace for their eternal reward.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믿고,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혜롭게 도와주셨습니다..

Soon the other ten disciples heard about James and John’s request to Jesus.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을 다른 열 제자도 들었습니다.

They became indignant. 그들은 격분했습니다.

Most likely, it was not righteous indignation toward blatant selfish ambition, but anger at their tactics in gaining an unfair advantage.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기적인 야망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혜를 따내고자 한 그들의 전략에 대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In fact, the ten had the same inner desire as James and John.

사실, 열 제자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동일한 내적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So Jesus addresses his teaching to all of them.

이에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He tells us the principle of leadership in his kingdom.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는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To make his teaching clear, Jesus contrasts Gentile rulers and great people in his kingdom.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세상의 통치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들을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After calling his disciples together, he said, "You know that those who are regarded as rulers of the Gentiles lord it over them, and their high officials exercise authority over them." (42)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은 후에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42).

Gentile rulers gain power by any means.

이방인 통치자들은 어찌하든지 권력을 얻고자 합니다.

Others are seen as competitors to be trampled on.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갈 경쟁자로 여깁니다.

Those who gain power use any means to keep it.

권력을 얻은 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Betrayal is common and there is no real friendship.

배반이 흔하게 일어나고 참된 우정이 없습니다.

These causes to great stress, headaches and heart trouble.

항상 긴장 속에 있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두통과 심장질환으로 고통합니다.

People have no peace, and can hardly sleep.

평화를 잃어버리고 불면의 밤을 보냅니다.

The disciples knew about all this very well and criticized the Gentile rulers.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방인 통치자들을 비난했습니다.

Nevertheless, they were becoming just like them, grabbing power to be on top.

그럼에도 그들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 권력을 움켜쥐려 하는 이방인 통치자들과 똑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Here we should acknowledge this tendency in fallen mankind, including us.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포함한 타락한 인간 속에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It is the real issue at the root of many conflicts in Jesus' church.

이것은 주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의 근원이 되는 실제 문제입니다.

Jesus said to them, "Not so with you" (43a).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라"(43a).

What does this mean?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It means that their mindset, value system and lifestyle should be different from those of Gentile rulers.

제자들의 마음과 사고방식, 가치관, 생활방식이 이방인 통치자들과 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Jesus introduced a totally different concept of leadership in the Christian community.

예수님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전혀 다른 리더십 개념을 제시하셨습니다.

Jesus said, "Instead, whoever wants to becom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and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slave of all" (43-44).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43-44).

The word "whoever" means this is a general principle.

"누구든지"라는 말은 이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Anyone can become great.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It is not a zero sum game.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How can one become great?
우리가 어떻게 위대해질 수 있을까요?

By being a "servant" and "slave of all."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됨으로써 가능합니다.

A servant or slave is one who is owned by another.
섬기는 자와 종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자입니다.

Servants do not have an identity or rights apart from their master.
종들은 주인을 떠나서는 정체성과 권리가 없습니다.

Servants in the Christian community are first of all servants of Christ, and also servants to others.
기독교 공동체에서 종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종을 가리키며, 또한 다른 사람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They give up their own rights and privileges to serve Christ and others.
그들은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포기합니다.

So the trajectory to greatness is not upward by means of self-exaltation, but a downward emptying of one's self.

따라서 위대함에 이르는 길은 자기를 높임으로써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움으로써 낮아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It is to die to our own passion, pride, and ambition and to grow in humility, love and service of Christ.

그것은 우리 자신의 열기, 교만, 야심에 대해 죽고, 겸손과 사랑, 그리스도의 섬김을 닮아 성장하는 것입니다.

Is it possible for us to change?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Not by our own effort.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But Jesus can transform us.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A good example is the Apostle Paul.

사도 바울이 그 좋은 예입니다.

He was an ambitious Pharisee bent on destroying Christians.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로 결심한 야심 많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The Risen Christ visited him on the road to Damascus and appointed him as his servant.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임명 하셨습니다.

It was the beginning of a total transformation.

그것은 완전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Paul grew to become a most humble, gentle person. He always identified himself as, "...a servant of Christ Jesus" and became "all things to all people"(1Co9:22).

바울은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밝히며,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되었습니다 (고전9:22).

He testified,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now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Gal 2:20).

그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20).

Jesus changes us!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In addition to being changed within, we also need an example to follow.

내면이 변화되는 것에 더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따를 본이 필요합니다.

Jesus is our example.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Let's read verse 45.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Though Jesus is in very nature God, who is worthy of all honor and praise and to be served by all human beings, he came to serve.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인간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In order to serve, he humbled himself from the highest glory in heaven and became a human being. 섬기기 위해 하늘의 가장 높은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As a human being he became a servant who obeyed God even to the point of death on a cross.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셨습니다.

His divine humility is the foundation for service.

그의 거룩한 겸손은 섬김의 기초입니다.

As we live in Christian community, we are called to follow Jesus in his humble servanthship.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에 살아가면서, 겸손히 섬기려 오신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Whenever we face challenges to serve people or conflicts in our community, it is the very time to practice Jesus' humility.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며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겪을 때,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의 겸

손을 실천할 때입니다.

Apostle Paul urges us: "In your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have the same mindset as Christ Jesus..." (Php 2:5)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5)

Our challenges are opportunities to grow more and more like Jesus, and to form lasting relationship with others.

우리가 겪는 여러 어려움들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 성장하며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Jesus' servanthip has had a huge impact on the world.

예수님의 섬김은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So many people have followed Jesus' example and lived a truly great life.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진정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Take, for example, Abraham Lincoln.

예를 들어, 아브라함 링컨을 생각해보십시오.

When he began his career as a lawyer, Edward Stanton opposed him in many ways.

그가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에드워드 스탠튼은 여러 면에서 그를 대적하고 반대했습니다.

Once Stanton said, "We don't need to go to Africa to see a gorilla. If we go to Springfield, Illinois we meet Gorilla Lincoln."

한번은 스탠튼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릴라를 보기 위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고릴라 링컨을 만날 수 있습니다."

Stanton continued to attack Lincoln was elected president, saying it was a "national disaster."

스탠튼은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도 계속해서 링컨을 공격하며,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Everyone noticed that he was Lincoln's enemy.

모든 사람이 그가 링컨의 적이라는 것을 알아했습니다.

Yet when Lincoln formed his Cabinet, he appointed Stanton as Secretary of War, the most important position at the time.

하지만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 내각을 구성했을 때, 링컨은 스탠튼을 당시 가장 중요한 직책인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Lincoln's aides strongly opposed this.

링컨의 보좌관들은 이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Lincoln responded, "I don't care if he despises me 100 times. I cannot find such a qualified person as him to overcome this crisis."

링컨은 대답했습니다. "그가 나를 백번이나 멸시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처럼 자격 있는 사람을 저는 찾을 수 없습니다"

His aides responded, "Still, he is an enemy. We must get rid of him.

이에 그의 참모들은 항변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원수입니다. 우리는 그를 제거해야 합니다."

Lincoln said with a smile, "I also think so. We should get rid of our enemies from our hearts.

그러자 링컨은 미소를 지으며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없애야지요."라고 말했습니다.

When we practice Jesus' words, 'Love your enemy,' we can make our enemies our friends.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친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Then our enemy will be gone and we will earn a friend.

그러면 우리의 원수는 사라지고 우리는 친구를 얻을 것입니다.

We can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이른바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Stanton became Lincoln's friend and coworker.

스탠튼은 링컨의 친구이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He overcame many hardships during the Civil War and helped unite America.

그는 남북 전쟁 동안 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미국을 통일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Later, when Lincoln was killed, Stanton was more sorrowful than others and said at his funeral, "Here the greatest man has been laid."

후에 링컨이 죽었을 때 스탠튼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슬퍼했고, 그의 장례식에서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묻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his greatness came from following Jesus in his humble servanthip.

이 위대함은 겸손하게 섬기는 종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Jesus served not only his disciples, but also a needy person.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곤고한 한 영혼을 섬기셨습니다.

As Jesus passed through Jericho with his disciples and a large crowd, a blind man, Bartimaeus, was sitting by the roadside begging.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맹인 바디매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He seemed insignificant.

그는 보잘 것 없어 보였습니다.

He must have heard that Jesus healed many incurable diseases, including blindness.

그런데 그가 맹인을 포함하여 수많은 불치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He believed that Jesus was the Messiah.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When he heard Jesus passing through, he began to shout,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It seemed to be just one more voice in the crowd.

많은 사람들 속에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묻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Many rebuked him and told him to be quiet.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But he was not daunted.

하지만 그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This was his one shot to meet Jesus.

이것이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So he shouted all the more,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그래서 그는 더욱 더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is desperate cry reached Jesus' ear.

그의 절박한 외침이 예수님의 귀에 닿았습니다.

It is amazing that Jesus listened to this man.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외침을 들어주셨습니다.

Jesus must have been sorry about his disciples' political ambition.

예수님은 제자들의 정치적 야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He was facing suffering and death. It seemed he could have no room in his heart to listen to one needy person.

고난과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끈고한 한 영혼의 말을 들어줄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Jesus not only heard his heart cry, he also stopped and called him.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을 뿐 아니라, 멈추어 그를 부르셨습니다.

When Jesus' attention went to this man, people changed their attitude toward him.

예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시자, 사람들의 그를 향한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They said, "Cheer up! On your feet! He's calling you" (49b).

그들은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고 말했습니다(49b).

Throwing his cloak aside, he jumped to his feet and came to Jesus (50).

그는 겹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왔습니다(50).

Jesus asked,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51a)

예수님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51a).

This seems to be Jesus' motto.

이 질문은 예수님이 자주 쓰시는 슬로건 같습니다.

The man said, "Rabbi, I want to see" (51b).

그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51b).

It was a proper request for what he really needed from the Messiah.

이는 그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메시아께 구한 적절한 요청이었습니다.

Jesus said, "Go, your faith has healed you."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Immediately he received his sight; he could see Jesus and follow him.

그러자 즉시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Today we have learned Jesus' servant leadership. So what kind of leaders are we?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섬기는 종의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리더입니까?

Growing up as the only son of my parents, I was naturally served and honored.

저는 부모님의 독생자로 성장하면서 자연히 섬김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I became proud and self-glory seeking.

저는 교만해지고 자기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I wanted to be the CEO of a company and enjoy power and wealth.

저는 기업체 사장이 되어 권력과 부를 누리고자 했습니다.

But I could not control myself.

그러나 저는 자신을 절제할 수 없었습니다.

Sins of lust, pride and selfishness enslaved me and I behaved shamefully.
정욕 교만 이기심의 죄들의 노예가 되었고 수치스럽게 행동했습니다.

In anguish of soul, I cried out.
영혼의 고통 속에서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Then Jesus met me through a Korean missionary.
그 때 주님은 어떤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He forgave my terrible sins and called me to a new life.
주님은 나의 끔찍한 죄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He gave me a desire to be a shepherd.
주님은 저에게 목자가 되고 싶은 소원을 주셨습니다.

But it was just the beginning.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My mindset and value system needed to be transformed.
저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변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When I was assigned to do all kinds of janitorial work, including cleaning the toilets, without any kind of recognition, an ugly selfishness arose within me.
화장실 청소를 포함한 온갖 청소일이 제게 맡겨졌고,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자 제 마음속에 추악한 이기심이 솟아났습니다.

I hated serving. When I was summoned repeatedly to do menial work, I threw my pager against the wall.
저는 섬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찮은 일을 하라는 지시를 거듭 받았을 때, 저는 삐삐를 벽에 내동댕이쳤습니다.

But it didn't break and kept on buzzing.
그러나 그것은 부서지지 않았고 계속 삐삐~~ 거리고 있었습니다.

I felt so trapped and miserable, like being on an electronic leash.

저는 덧에 걸린 듯 너무나 비참한 느낌이 들었고, 마치 전자 목줄에 묶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As I was struggling like this, one day, Mark 10:45 spoke to my heart.

이렇게 힘들어하던 어느 날,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Jesus helped me realize that he served to the point of shedding his blood on the cross.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까지 섬기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And the essence of being a shepherd was to serve others in many ways.

그리고 목자가 되는 것의 본질은 여러 모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It was a moment of transformation.

그것은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I began to serve with a new attitude and tasted the joy of serving others in Jesus.

저는 새로운 자세로 섬기기 시작했고,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To make a long story short, it is only by the grace of God that I became a pastor and even UBF General Director.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제가 목사가 되고 심지어 UBF 세계대표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It is a glorious privilege but also a real cross.

그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이지만 또한 진정한 십자가입니다.

I must struggle to die to myself every day and rise with Christ to serve others with his mindset.

저는 매일 날마다 자아를 죽이기 위해 투쟁해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그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Only Christ in me can enable me to be a servant leader who loves and builds up others.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나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워 주는 섬기는 종과 같은 리더가 될 수 있게 하십니다.

I am very grateful for the prayers of all brothers and sisters around the world.

전 세계 모든 형제자매들의 저를 위한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e Lord upholds me through your prayers.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And just as I need Christ, so do we all.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Whatever sphere of leadership or influence we have, we can be useful and fruitful if we die to ourselves and let Christ live in us.

우리가 어떤 분야의 리더십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한다면 우리는 쓸모 있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Let's pray for Jesus' mercy to grow as servant leaders like him.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과 같은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